

엄마 아빠와 문화재 가꾸요

18일 안동서 '한가족 한문화재 가꾸기' 운동 발대식

“우리 주위에 잊혀져가는 문화재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주말 가족 나들이도 되고, 아이들에게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고성 이씨 제사’라는 문화 행사를 몰보면 서 더 자긍심을 느끼게 됐어요.” 김내영(34·안동)씨 가족의 문화재지킴이 활동 사례발표다.

“고성 이씨 제사는 오래돼서 할 말이 많을 거다. 자주 가서 풀을 뽑아줘야겠다” 딸 민주(초등1년)양의 깜찍한 발표에는 연방 카메라 플래시가 터진다.

10월 18일 경북 안동시 중심에 위치한 ‘태사묘’에는 ‘한가족 한문화재 가꾸기’ 운동 발대식이 거행됐다. 조용하던 태사묘에는 문화유산현장이 울려 퍼지고, ‘우리 문화재 우리가 가꾸고 지키자’는 소리가 높여 퍼져갔다.

간간이 비가 흠뻑리는데도 전국에서 문화재를 사랑하고 아끼는 문화 애호가 200여 명이 모였다. 안동문화지킴이를 비롯해 경주 신라문화원, 대구 거리문화시민연대, 광주 대중문화연구회, 서울 한



“우리는 모두 문화재 지킴이” 10월18일 한가족 한문화재운동 발대식에 참가한 가족들.

국의 재발견, 인천 해반문화사랑회 등 전국 11개 문화단체 대표와 활동가들이다.

2002년 5월부터 안동문화지킴이를 중심으로 시작된 ‘한가족 한문화재 가꾸기’ 운동을 전국으로 확대해나가기 위해서다. 이 운동은 가족 단위로 하나 이상의 문화유산을 맡아 청소부터 주변정리, 문화재 훼손 방지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이다. 문화재청과 안동시

도 전폭적인 후원을 약속하며 동참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동 이수다원 다도회 회원들이 정성스럽게 차와 다식을 준비했고, 중요무형문화재 23호 강정열 씨의 가야금 병창과 이정훈 씨의 마립, 한국인형극연구회 양해경 씨의 길굿 공연이 이어졌다. 태사묘의 넓은 잔디와 동제, 서재, 경모루 곳곳에는 이미 활동 중인 가족문화재지킴이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갓난아기를 업은 아이 엄마부터 고등학생 딸과 함께 온 아버지까지, 평범하지만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이들도 있다.

김현미(34·안동)씨는 “많은 문화재를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유익했다”고 한다. 한은진(33·안동)씨는 “딸 예원(5)이가 고택에만 가면 ‘지킴이’가 됐다고 좋아한다”며 “어린 아이들에게 주는 영향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1인(人) 1사(社) 1교(校)의 1문화재 가꾸기 운동이 우리문화재를 현장에서 지키는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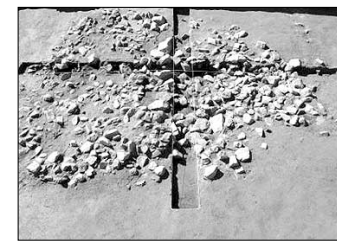
안동문화지킴이 임재해(안동대 민속학교수) 대표는 “‘한가족 한문화재 가꾸기’ 운동은 새로운 가족문화 만들기’의 하나”라며 “언젠가는 모든 국민이 문화재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모인 문화 애호가들의 머리 속에는 이미 이 운동을 전개시켜나갈 구상이 가득했다. 진병길 신라문화원장은 “문화원이 가진 조직력을 이용해 학교, 유치원을 중심으로 한 불교문화재 지킴이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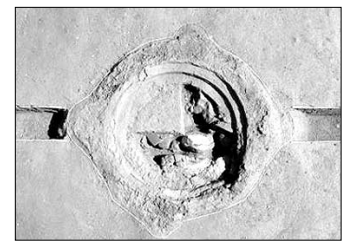
글·사진/안동=배지선 기자

안성 봉업사지, 범종제작 유구 첫 발견

태조 왕건의 진영을 봉안했던 고려시대 거찰로 조선시대 폐사된 안성 봉업사 절터에서 범종 제작 유구가 경기도박물관(관장 이종선)에 의해 최초로 발견됐다.



용해유구.



주형유구.

경기도박물관은 지난 9월 10일 죽산리3층석탑(경기도유형문화재 제78호) 남쪽 지역을 발굴하던 중 종의 외형틀과 바닥에 해당하는 주형유구(鑄型遺構)와 주형에 주입할 청동을 녹이기 위한 용해유구(鑄解遺構)를 발견했다고 10월 22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견된 주형유구는 틀을 놓았던 원형의 띠를 반원형의 네 귀가 달린 단단한 소토 덩어리로 감싼 모습으로, 형틀 내부는 지름 77cm, 종구의 두께는 5cm이며, 높이 2cm의 종의 외형을 흔적이 남아 있다.

있는 용해유구는 동·서 3.2m, 남북 2.6m의 규모로 할석재를 사용해 만들어졌으며, 안쪽에는 목단층이 넓게 확인되었다.

봉업사지에서는 지금까지 죽산리 5층석탑(보물 제435호)을 비롯해 3종 7점에 이르는 많은 석조문화재들과 통일신라시대 목탑지, 고려시대 건물지와 부속시설 등 모두 28개소의 유적이 확인됐으며, 고려 광종대 독자적 연호인 ‘준종(峻宗)’ 등 40여 종 500점의 명문기와류, 마새류, 청자, 중국자기 등 다량의 유물이 출토됐다.

박익순 기자

환경부, 천성산 약속 파기

독자검토 후 고법에 의견 전달...환경단체 반발

환경부가 8월 26일 합의한 ‘고속철 천성산 구간에 대한 전문가 공동 검토 실시’ 약속을 일방 파기했다. 이에 대해 도통농소송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 등 환경단체들은 ‘환경부가 공단의 들러리 노릇을 하고 있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서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환경부가 8월 26일 합의한 ‘고속철 천성산 구간에 대한 전문가 공동 검토 실시’ 약속을 일방 파기했다.

환경부는 10월 19일 출입기자 브리핑을 통해 “지질·지하수 전문가 2인과 습지 전문가 1인을 위촉, 철도시설공단이 제출한 ‘천성산 지역 자연 변화 정밀 조사 보고서’를 검토

한 결과 터널공사가 습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론은 환경부가 9월 10~14일 철도시설공단이 대한지질공학회에 연구를 의뢰해 2002년 발표한 보고서에 대한 문헌검토와 2박 3일간의 현장조사를 실시한 끝에 얻어진 것이다. 환경부는 이 내용을 10월 15일 부산고법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환경부의 행동은 지을 스님의 청와대 단식진정이 58일째 이

른 8월 26일, 고속철 천성산 구간에 대해 환경단체·환경부·철도시설공단 3자가 함께 전문가검토를 실시하지는 합의를 사실상 깨뜨린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환경단체와 불교단체들은 반박성명을 즉각 발표하는 등 행동에 나섰다.

시민행동은 10월 19일 ‘천성산 관통터널 공사에 대해 환경부가 독자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부산고법에 제출한 데 대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20일 서울 정부중합청사 앞 항의 시위를 벌였다.

지을 스님 역시 광결호 환경부 장관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강유신 기자

포항시장 종교편향 언행 물의

지역불교계 공개참회·퇴진 요구

이명박 시장의 ‘서울시 봉헌’ 발언이 물의를 빚으며 국민적인 비난을 산데 이어, 또다시 한 지방단체장의 종교 편향행위가 반복돼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의 주인공은 경북 포항시의 행정 책임자인 정장식 시장. 정 시장은 올해 부처님오신날(5월 26일)을 앞둔 5월 2일 ‘포항시를 기독교 도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발족한 ‘포항 홀리클럽’의 창립을 주도하는 한편, 그 이후에도 종교 편향적인 행동과 발언을 수차례 반복해 왔다.

이에 대해 포항지역사회연구소는 9월 19일 성명을 통해 “시장은 재직 동안 포항 홀리클럽에서 탈퇴하고 포항시를 기독교 도시로 만들겠다는

운동에서 손을 떼라”고 주장했다. 포항불교계 역시 10월 11일 시에 대해 “시장 직위를 이용해 특정종교 도시 만들기에 나서려는 것은 직권 남용”이라며 공개참회와 퇴진을 요구했다.

정 시장은 비난의 목소리가 고조되자 10월 12일 시 확대간부회의에서 “특정 종교편향 행위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사과한다”면서도 “그 동안의 행위는 종교적 편향이나 다름없다”고 변명했다.

한편 108명 시민과 불자들이 ‘서울시 봉헌’ 발언을 한 이명박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차심리가 10월 21일 서울지법에서 열렸다. 2차 심리는 11월 18일로 예정됐다.

강유신 기자

불교생태학 연구 ‘에코포럼’ 창립

불교생태학 연구의 저변을 확산하고 생태·환경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연구 성과를 결집하기 위한 에코포럼(공동대표 고건·홍기삼)이 10월 17일 발족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고건 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에코포럼이 앞으로 환경실천운동의 합리적·현실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다”며 포럼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에코포럼은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정례포럼을 열고 생태학과 환경, 불교관련 인문·자연과학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한 연구발표와 대안 모색에 나서게 된다. 정례포럼과는 별도로 학기별 우리사회의 생태·환경문제에 대한 ‘쟁점 심포지엄’을 개최해 각종 현안들을 집중 조명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조용수 기자

미륵중, 종단협 회원가입

미륵중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가입했다. 종단협 회원종단은 25개에서 26곳으로 늘었다. 종단협은 10월 19일 열린 불기 2548년 제1차 임시사회에서 미륵종의 회원 가입을 승인했다.

미륵중은 자각각타(自覺覺他) 전법도생(傳法度生)을 중지로 1987년 창종한 종단이다. 종조는 진표율사이며, <미륵삼부경> <금강경> <화엄경>을 소의경전으로 삼고 있다. 현재 총무원장은 송정 스님(김해 관음정사)을 중심으로 150여 사람이 소속돼 활동하고 있다. 박봉영 기자

강의석 군 “종교자유 달라” 2차 단식

학교측 절차 문제로 예배선택권 시행 미뤄

종교 자유를 주장하며 46일간 단식을 한 강의석 군(18·서울 대광고 3)이 10월 16일 재차 단식에 들어갔다. 학교측이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를 들어 9월 25일 합의한 ‘학내 예배 선택권 보장’에 대한 실천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강 군은 지난 6월 16일 강제 예배를 반대한다는 교내 방송을 한데 이어 서울시 교육청 앞 1인 시위를 벌이다 지난 7월 8일 제적 통보를 받았다.

강 군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학교가 전교생에게 예배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합의를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문서로 작성된 합의내용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때까지 단식을 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강 군은 퇴학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종교 자유를 요구하는 평화 시위를 벌였다. 법원은 결국 9월 1일 퇴학무효 가처분결정을 내렸고 학교는 이에 따라 9월 25일 예배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강 군에게 했었다. 학교에 부족한 강 군은 그동안 수능을 준비하며 종교 자유를 위한 활동을 펼쳤다. 강유신 기자

종교법인 484개 중 불교법인 123개

2004년 8월 기준으로 문화관광부가 허가하고 관리감독하고 있는 종교법인체는 총 484개이고, 이 중 불교법인체는 123개로 조사됐다.

문화관광부가 10월 18일 밝힌 법인현황에 따르면 종교법인체는 재단법인 270개와 사단법인 214개를 포함해 총 484개로 나타났다. 불교법인은 재단법인 49개와 사단법인 74개 등 123개였으며, 개신교는 232개(재단 117, 사단 115), 가톨릭은 82개(재단 72, 사단 10), 유교는 21개(재단 17, 사단 4)였다.

특히 불교법인은 절반가량인 68개(재단 25개, 사단 43개)가 서울지역에 집중돼 있었다. 남동우 기자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곤지암 우리절

천도재 기도도량 ·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요 일	시 간	법 회 명	강 의 내 용
매주일요일	10-14시	일요가족법회	금강경강의
매주수요일	10-15시	목련사랑법회	화엄경강의
≡	10-15시	수능자녀기도	≡
≡	10-15시	지장경독송회	≡
매주목요일	10-15시	대비주기도회	예참문강의
셋째 화요일	14-17시	부산 · 동선회	주제별특강

◆ 고암대중사 추모재 및 생신재

오는 10월 28일 목요일(음력 9월 15일)은 우리절 주지 동봉스님의 은법사이시며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을 역임하셨던 고암대중사님의 제16주기 추모재입니다. 그리고 오는 11월 16일 화요일(음력 10월 5일)은 고암대중사의 탄신105주년 되는 날입니다. 해인사 용담선원을 비롯하여 전국의 문도회 사암에서 추모재 및 생신재를 봉행합니다만 우리절에서도 불자들님과 함께 큰스님의 덕화를 기리고자 합니다.

◆ 태화산산신제

오는 11월 7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우리절에서는 태화산 산신제를 봉행합니다. 이미 관음전 내에 산신단을 모시고 매일 아침저녁 예불과 함께 사시마지를 올리고 있습니다만 2005학년도 수능일을 앞두고 올리는 이번 태화산 산신제에 불자들의 깊은 관심 있으시길 바랍니다. 산신제에 공양물을 올리고자 하시는 분은 미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곡》제13권 발간

오는 11월 7일 태화산산신제에 즈음하여 우리절주지 동봉스님의 《일원곡》제13권이 발행됩니다. 이번 제13권에는 영산재 직법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참석하신 불자들에게는 출가·재가를 가리지 않고 나누어드립니다.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